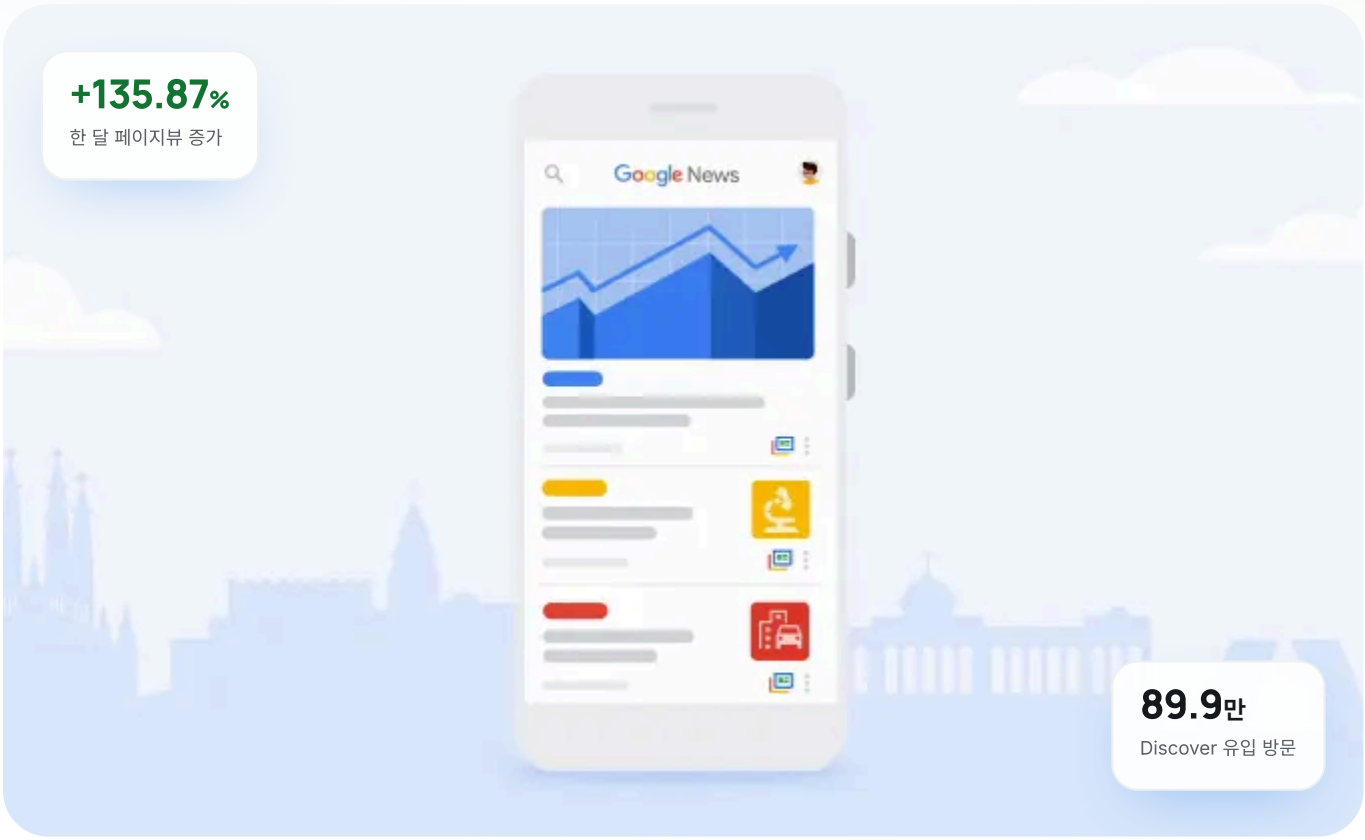
IG CRM AI

파트너십 제안서 · GOOGLE DISCOVER · GOOGLE NEWS

수백만 독자를 Google Discover에서 귀사 사이트로. 비용은 0원.

귀사 매체 안에 새로운 주제별 섹션을 만들어 직접 운영합니다. 기사 작성과 게재는 물론 Discover와 Google News 노출까지 저희가 맡습니다. 트래픽은 귀사 도메인에 그대로 남고, 모든 방문은 귀사 광고 수익으로 이어집니다.

매체 부담 월 0원 | 사이트 맞춤 수익 배분 | 지식 그래프를 갖춘 필진



현재 고객사 성과 · 2026년 8월

저희 필진이 단 한 달 만에 만든 성과

+135.87%
섹션 역대 평균 대비 페이지뷰

162만
월간 페이지뷰

132만
월간 순방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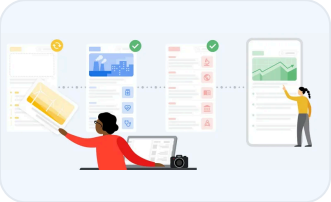
89.9만
Google Discover 유입 방문

출처: Marfeel. 저희 편집팀 바이라인 기사만 필터링한 수치입니다.

진행 방식

지면만 내주세요. 나머지는 저희 몫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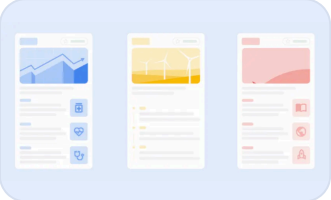
5단계, 하나의 팀. 귀사 편집국은 지금처럼 일하시면 됩니다.



01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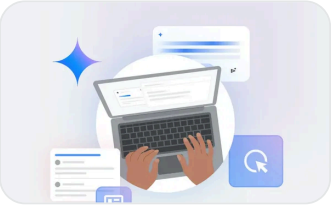
귀사 사이트를 살펴보고, Discover 수요가 있으면서 기존 독자와는 다른 층을 끌어올 주제를 고릅니다.



02

새 섹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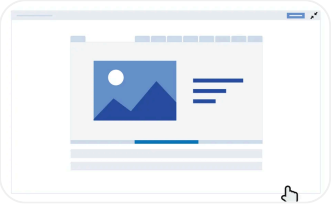
이 버티컬을 위한 전용 카테고리를 만들고, 메인 편집 방향과는 분리해 운영합니다.



03

기사 작성

Discover 전문 필진이 귀사 CMS에서 직접 기사를 쓰고 게재합니다.



04

배포

제목, 큰 이미지, 게재 타이밍을 Discover와 Google News, 자연 검색에 맞춰 최적화합니다.



05

수익화

방문 수익은 기존 광고로 귀사가 가져갑니다. 섹션의 커머셜 버티컬은 저희가 수익화하며, 다른 모델을 함께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매체가 할 일

거의 없습니다

- CMS에 저희 팀 작성자 계정 생성
- 새 버티컬용 카테고리 개설
- 성과 확인을 위한 Search Console 읽기 전용 권한 부여

저희 팀이 할 일

콘텐츠에 관한 모든 것

- 주제 리서치와 선정
- 기사 작성(필요하면 여러 언어로)
- 게재와 Discover·SEO 최적화
- 버티컬 수익화
- 정기 성과 리포트 발송

서비스

Google에서 성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 하나의 파트너십으로

기획부터 수익화까지 모든 단계를 저희가 맡습니다. 어디까지 함께할지는 귀사가 정하시면 됩니다.

Discover 전용 섹션 운영

귀사 사이트에 전용 카테고리를 열고, 저희 필진 바이라인으로 Discover에 최적화된 기사를 꾸준히 채워 갑니다.

Google News 배포

제목, 이미지, 게재 시간, 구조화 데이터를 Discover와 Google News, 자연 검색에 맞춰 최적화합니다.

권위 있는 필진

저희 필진은 모두 Google이 인식하는 엔티티이며, 각자 지식 그래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귀사 기사에 강력한 E-E-A-T 신호가 됩니다.

다국어 콘텐츠

여러 언어로 기사를 써서 귀사 매체를 새로운 독자층과 새로운 시장에 선보입니다.

유연한 수익화

비용 0원, 수익 배분, CPA, 월정액, 혼합형까지. 귀사 사이트에 맞는 모델을 함께 정합니다.

투명한 월간 리포트

Search Console과 귀사 분석 도구의 수치를 매달, 꾸밈없이 그대로 전달합니다.

별도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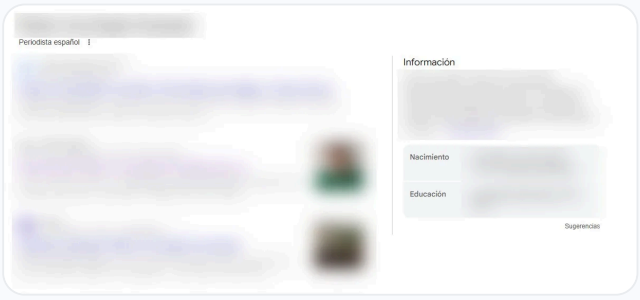
편집국을 위한 지식 그래프

별도 서비스입니다. 귀사 기자들도 Google 엔티티를 갖추도록 지원해 사이트 전체의 권위를 높입니다.

필진의 권위

Google이 알아보는 필진

저희 필진은 모두 Google 엔티티이며, 각자 지식 그래프(Knowledge Graph)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Google은 이들을 경험 많은 저자로 인식하고, 이는 Discover와 E-E-A-T 모두에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들이 귀사 사이트에 쓰는 기사도 그 권위의 덕을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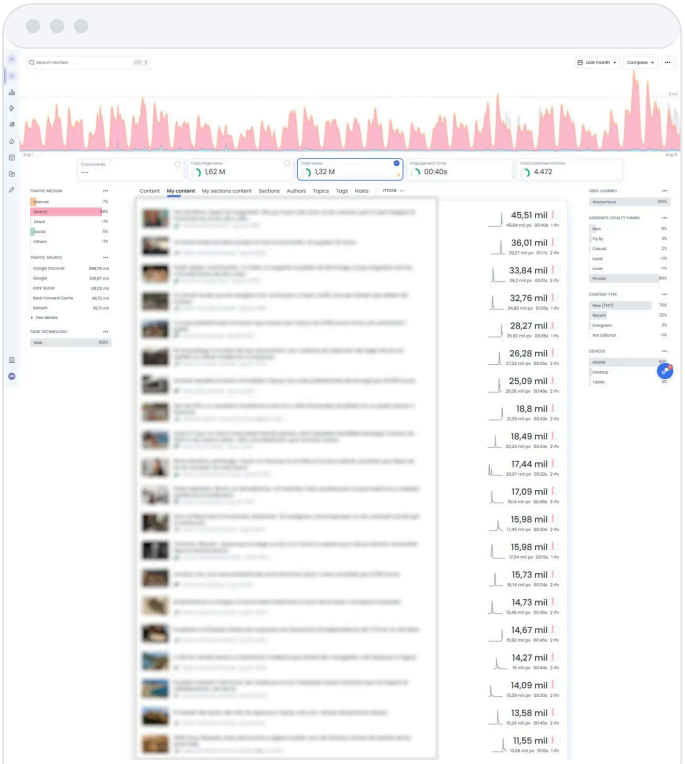


저희 필진 한 명의 실제 지식 패널입니다. 저희 필진은 모두 자신만의 지식 패널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세부 정보는 흐리게 처리했습니다.

실제 데이터 · 2026년 8월

파트너 매체와 함께한 한 달

2026년 8월, 한 파트너 매체에서 저희 팀이 쓴 기사만 집계한 수치입니다. 기사 제목은 기밀 유지를 위해 흐리게 처리했습니다.



Marfeel 대시보드, 2026년 8월 1~31일. 목록의 기사 한 편당 1.1만~4.5만 명의 사용자가 유입됐습니다.

트래픽 유입 경로

Google Discover	89.9만
Google 검색	34.1만
다크 소셜	6.8만
뒤로/앞으로 캐시	4.9만
새로고침	3.6만

88%
검색 유입 비중

94%
모바일 방문

76%
신규 콘텐츠

00:40
참여 시간

역대 평균 대비 총 페이지뷰 +135.87%

지난달	162만
최고	136만
평균	68.7만
최저	25.8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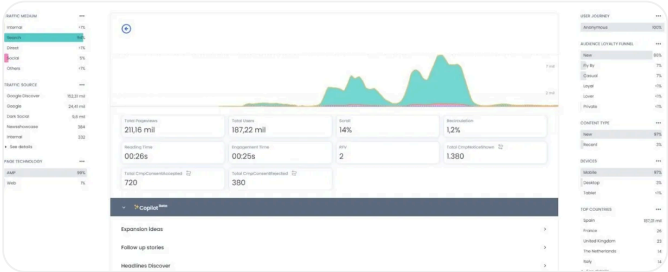
8월은 이전 최고 기록(136만)을 넘어섰고, 평균(68.7만)보다 135.87% 높은 수치로 마감했습니다.

개별 기사 · MARFEEL

기사 한 편으로 15만 명 넘는 사용자를 모을 수 있습니다



페이지뷰 17만 · 사용자 16.1만 명. Discover 유입 방문은 12.4만 회, 읽기 시간은 1분 08초였습니다.



페이지뷰 21.1만 · 사용자 18.7만 명. Discover 유입 방문은 15.2만 회였고, 그중 97%가 모바일이었습니다.

성공 사례 · GOOGLE SEARCH CONSO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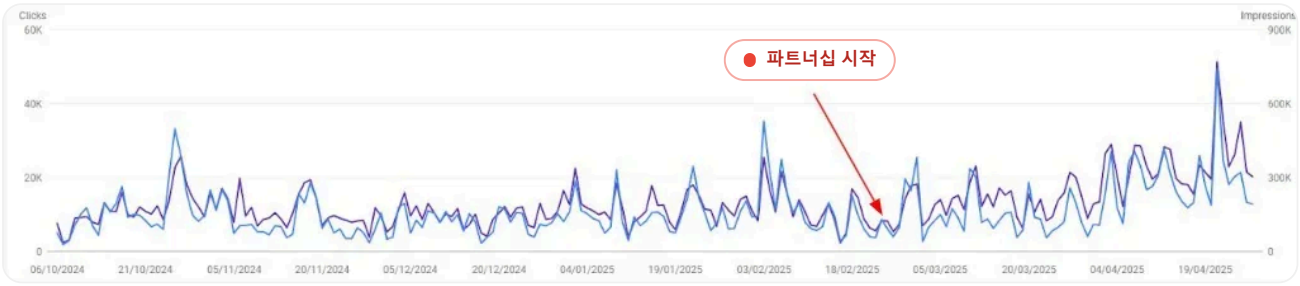
함께 일하기 시작하면 달라지는 것

두 파트너 매체의 Search Console Discover 보고서입니다. 화살표는 저희 팀이 기사 게재를 시작한 날입니다.

매체 A

하루 약 1만 클릭에서 최고 5만 클릭까지

225만	4,060만	5.5%
클릭수(12개월)	노출수	평균 CT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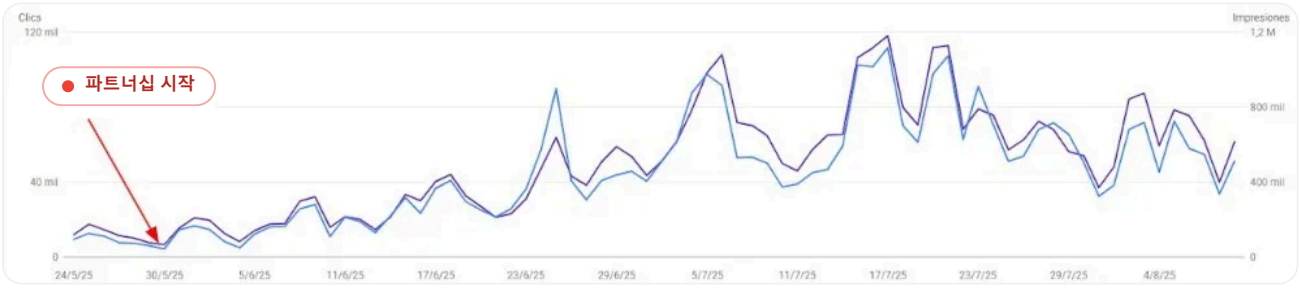


2025년 2월 말 파트너십 시작. 4월에는 연중 최고 클릭 수를 기록했습니다.

매체 B

7주 만에 하루 10만 클릭 돌파

351만	3,880만	9%
클릭수(기간)	노출수	평균 CTR



2025년 5월 30일 파트너십 시작. 7월 중순 Discover 일일 클릭 수가 10만을 넘어섰습니다.

매체가 얻는 것

편집국 증원 없이 성장

순방문자 증가

기존 독자층을 보완하는 새로운 독자가 매달 찾아옵니다.

Google 내 존재감 강화

도메인이 Discover와 검색에서 이력을 쌓고, 그 효과는 귀사 자체 콘텐츠에도 돌아갑니다.

광고 수익 증가

저희 기사로 들어온 모든 방문에 귀사 사이트의 광고가 노출됩니다.

비용 0원

수수료도, 추가 인력도, 기술 작업도 필요 없습니다.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파트너십 모델

사이트에 맞는 수익 모델을, 비용은 0원 그대로.

모든 파트너십은 같은 원칙에서 출발합니다. 매체는 비용을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그다음 사이트를 분석해 트래픽 규모, 독자층, 시장에 가장 잘 맞는 인센티브를 제안합니다.

기본 모델

버티컬 파트너십

0원 /월

새 섹션을 운영하고, 그 섹션의 커머셜 수익화를 저희가 맡습니다. 사이트 트래픽과 광고는 그대로 귀사의 것입니다.

- 수수료도, 추가 인력도 없음
- 기술 작업 없음
- 사이트 광고는 100% 귀사 몫

수익 배분

저희가 만든 트래픽으로 수익을

맞춤 배분율

소규모 — 규모와 품질에 따라 배분율 상승 — 대규모

저희가 유입시킨 트래픽에서 발생한 광고 수익의 일부를 귀사에 배분합니다. 배분율은 사이트의 트래픽 규모, 독자층, 시장에 따라 정해지며 성과에 따라 높아집니다.

CPA

전환 건당 지급

섹션에서 발생한 유효 전환 1건마다 대가를 지급합니다. 지표는 함께 공유하고 검증할 수 있습니다.

월정액

고정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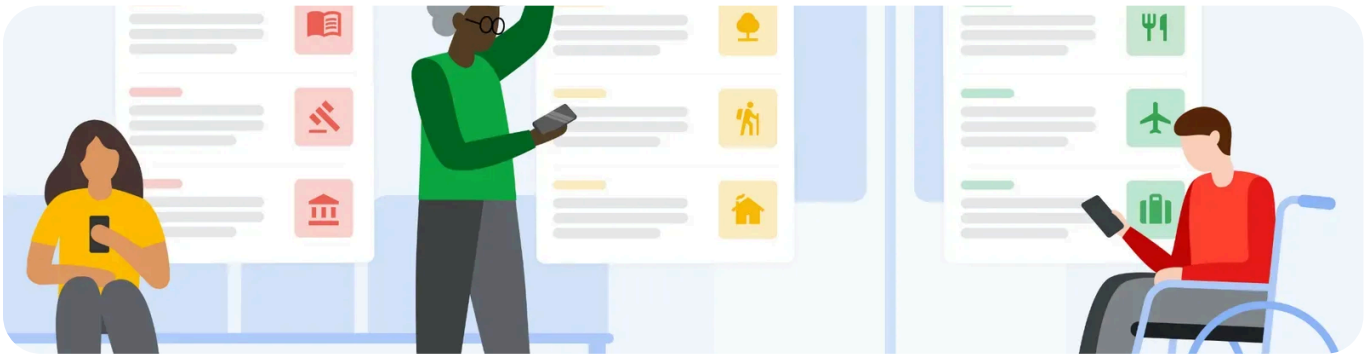
지면 사용료로 합의한 금액을 매달 지급해 예측 가능한 수입이 생깁니다. 트래픽 규모와 독자층이 조건에 맞는 사이트에 제공합니다.

혼합형

맞춤 설계

고정 금액, 수익 배분, CPA를 귀사 매체에 가장 효과적인 비율로 조합합니다.

모든 모델을 모든 사이트에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월정액과 수익 배분율은 트래픽 규모, 독자층, 시장, 섹션 유형을 분석한 뒤 개별적으로 정합니다.



별도 서비스 · 지식 그래프

귀사 기자들도 Google 엔티티가 될 수 있습니다

파트너십과 별도로 편집국 전용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귀사 기자와 에디터가 저희 필진처럼 Google 엔티티와 지식 패널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Google이 귀사 바이라인을 전문 저자로 인식
- 매체 전체의 E-E-A-T 신호 강화
- Discover, News, 검색에서 콘텐츠 가시성 향상

쉽게 말하면

서비스를 이해하는 세 가지 개념

01

엔티티

Google에게 엔티티란 모호함 없이 식별할 수 있는 사람, 조직, 장소입니다.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지, 어떤 콘텐츠와 연결되는지 Google이 알고 있는 대상을 말합니다.

02

지식 그래프

지식 그래프(Knowledge Graph)는 Google이 엔티티를 서로 연결해 두는 방대한 지식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기자, 매체, 주제, 기사, 수상 경력이 모두 여기서 이어집니다.

03

지식 패널

누군가 엔티티를 검색하면 결과 화면에 나타나는 정보 상자입니다. 기자에게는 Google이 자신을 알고 있다는 눈에 보이는 증표입니다.

도입 전과 후

엔티티가 없을 때

- Google에게 바이라인은 페이지 위의 이름일 뿐
- 동명이인과 흩어진 프로필로 인한 혼선
- 검색 결과에 지식 패널 없음
- 약하거나 들쑥날쑥한 권위 신호

엔티티가 있을 때

- Google이 기자가 누구이고 무엇을 취재하는지 파악
- 바이라인이 매체와 담당 분야에 연결
- 검색 결과에 지식 패널 표시
- 모든 기사에 명확하고 일관된 E-E-A-T 신호

무엇보다 투명하게

엔티티 인식 여부는 Google이 결정하며, 누구도 이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Google이 활용하는 신호를 체계적으로 다지고, 진단 단계부터 바이라인별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왜 중요한가

Google은 무엇을 썼는지만큼 누가 썼는지도 봅니다

E-E-A-T

경험, 전문성, 권위, 신뢰는 Google 품질 가이드라인의 핵심입니다. 식별 가능한 저자는 이 신호를 명확하고 검증 가능하게 만듭니다.

Discover와 Google News

두 채널 모두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 자리를 내줍니다. 명확히 식별되는 바이라인은 피드에서 기사가 돋보이도록 돕습니다.

모든 기사에 효과

저자의 권위는 그 이름으로 나간 모든 기사에 따라붙습니다. 새 기사는 물론 매체의 지난 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가는 가치

엔티티는 기자와 매체에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끝나는 캠페인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단단해지는 자산입니다.

방법론

단계별 진행 방식

01

바이라인 진단

기자별 작성자 페이지와 바이라인, 온라인 활동 현황을 분석합니다. 바이라인마다 우선순위와 현실적인 일정을 정합니다.

02

고유 아이덴티티

바이라인마다 이름, 직함, 약력, 전문 분야, 사진, 공식 프로필까지 일관된 아이덴티티를 구축합니다.

03

작성자 페이지와 구조화 데이터

Person 마크업과 sameAs 링크로 매체의 작성자 페이지를 최적화해, Google이 모든 기사를 올바른 인물과 연결하도록 합니다.

04

권위 신호

신뢰할 수 있고 서로 일관된 출처 전반에서 바이라인별 존재감을 다져, Google이 독립적인 근거를 찾을 수 있게 합니다.

05

모니터링과 리포트

엔티티별 인식 상태와 지식 패널 노출 시점을 추적하고, 정기 리포트와 함께 명확한 다음 단계를 제시합니다.

제공 내용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작업

- 선정된 모든 바이라인에 대한 초기 진단
- 저자별 우선순위를 담은 실행 계획
- 최적화된 작성자 페이지와 바로 게재할 수 있는 마크업
- 엔티티별 현황을 담은 정기 리포트
- 바이라인과 프로필을 일관되게 유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이런 곳에 맞습니다

바이라인의 가치를 제대로 살리고 싶은 편집국을 위해

- 자체 편집국과 고정 바이라인을 갖춘 매체
- 매체의 신뢰도를 높이고 싶은 편집장과 데스크
- Discover와 Google News에 힘을 싣는 편집국
- 여러 매체와 다수의 필진을 둔 미디어 그룹

별도 서비스

맞춤 견적

비용은 바이라인 수와 각 바이라인의 현재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 이메일 상담 후 부담 없이 산정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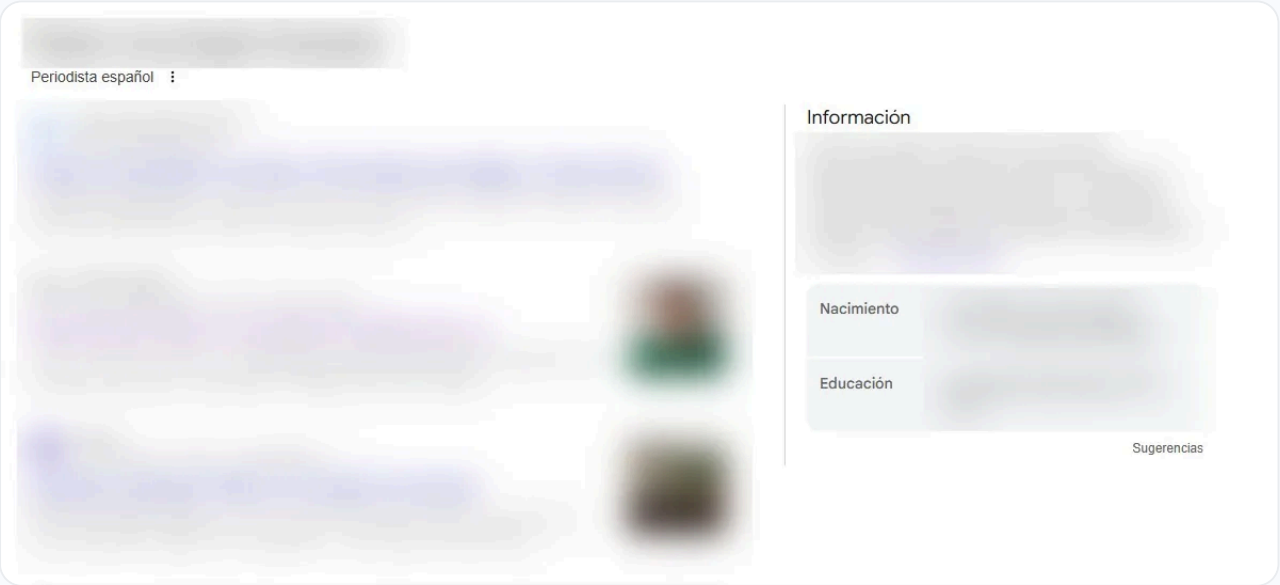
Discover 파트너십과 함께하면 더 좋습니다

저희 필진은 이미 엔티티를 갖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로 귀사 기자들도 엔티티를 갖추면, 매체 전체가 권위 있는 바이라인으로 Google 앞에 서게 됩니다.

실제 사례

귀사 바이라인을 위해 저희가 만들어 가는 결과

저희 필진 한 명의 지식 패널입니다(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흐림 처리). 저희 필진은 모두 이런 패널을 갖고 있으며, 이 서비스를 통해 귀사 기자들도 같은 결과를 갖출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저희 필진 한 명의 실제 지식 패널입니다. 저희 필진은 모두 자신만의 지식 패널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세부 정보는 흐리게 처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궁금한 점을 모았습니다

기사는 누구의 바이라인으로 나가나요?

저희 필진입니다. 필진마다 귀사 사이트에 전용 작성자 프로필이 있고, 모두 자신의 지식 그래프를 보유한 Google 엔티티입니다. 콘텐츠는 명확히 표시되어 귀사 편집국 기사와 구분됩니다.

어떤 섹션을 만드나요?

Discover 수요가 높고 귀사 독자층을 보완하는 주제입니다. 정해진 카테고리는 없습니다. 시작 전에 귀사의 편집 기준과 해당 시장의 규정에 맞춰 주제를 함께 정합니다.

매체의 편집 방향이 바뀌나요?

아닙니다. 콘텐츠는 전용 카테고리에 게재되며, 편집국의 보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기술팀이 필요한가요?

필요 없습니다. CMS 사용자 계정과 카테고리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기술적인 세부 사항은 진행을 결정하신 뒤 함께 정리합니다.

수익 배분, CPA, 월정액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언제나 매체 부담 0원에서 출발합니다. 수익 배분을 택하시면 저희 트래픽으로 발생한 광고 수익의 일부를 받으시며, 배분율은 사이트의 트래픽 규모, 독자층, 시장에 따라 정해집니다. 또는 전환 건당 지급(CPA), 월 고정 금액, 혼합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모델을 모든 사이트에 제공하지는 않으며, 분석 후 결정합니다.

지식 그래프 서비스도 포함되나요?

귀사 기자들을 위해 마련한 별도의 선택형 서비스입니다. 견적은 맞춤형이며, 첫 이메일 상담 후에 산정합니다.

성과는 어떻게 측정하나요?

Search Console과 귀사 분석 도구의 읽기 전용 권한으로 확인합니다. 매달 섹션 수치를 정리한 리포트를 보내 드립니다.

한국어로도 작업하나요?

네. 저희 팀은 한국어를 포함한 여러 언어로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별도 서비스 · 지식 그래프

서비스에 대한 질문

얼마나 걸리나요?

기자마다 온라인 이력에 따라 다릅니다. 초기 진단에서 바이라인별로 현실적인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유명한 기자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실제로 검증할 수 있는 취재·보도 활동이 있으면 됩니다. 저희는 그 활동을 Google이 명확히 알아볼 수 있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편집국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많지 않습니다. 바이라인별 기본 정보를 공유하고 작성자 페이지 접근 권한을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맡습니다.

지식 패널 노출을 보장하나요?

아닙니다. 보장한다는 곳이 있다면 경계하세요. 결정은 Google의 몫입니다. 저희가 보장하는 것은 엄격한 방법론, 모든 단계의 투명성, 명확한 리포트입니다.

바이라인 몇 명까지 가능한가요?

기자 한 명부터 편집국 전체까지 가능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지는 진단 단계에서 함께 정합니다.

다음 단계

시작하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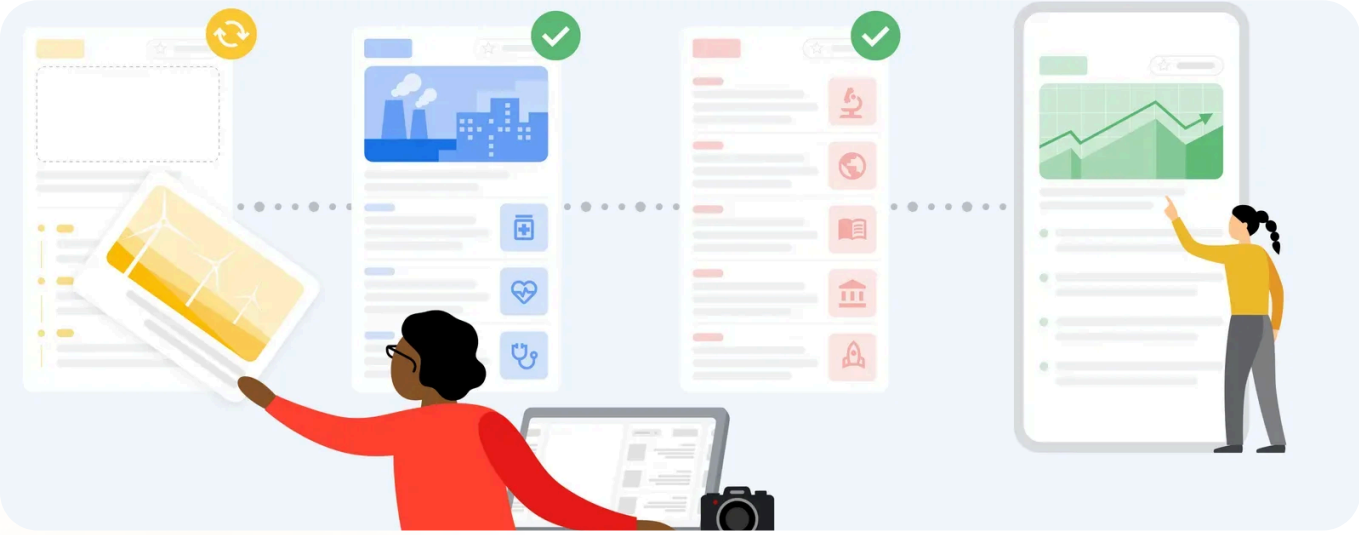
1. 먼저 이메일로 귀사 사이트와 독자층을 파악합니다.
2. 주제와 새 섹션을 제안합니다. 약정 부담은 없습니다.
3. 작성자 계정을 만들고 기사 게재를 시작합니다.
4. Search Console과 분석 도구 기준의 월간 성과 리포트를 보내 드립니다.

시작할 준비가 되셨나요?

매체명을 적어 연락해 주세요. 사이트를 분석해 가장 적합한 모델을 제안해 드립니다.

account@igcrm.ai

igcrm.ai/kr/



회사 정보

상호	IG CRM AI LLC
본사 소재지	1209 Mountain Road Pl NE Ste R Albuquerque, New Mexico 87110, United States
EIN(미국 납세자 번호)	33-3536474
웹사이트	igcrm.ai
이메일	account@igcrm.ai

파트너 매체의 Search Console 및 Marfeel 데이터를 익명화해 사용했습니다. 과거 성과가 향후 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Google, Google News, Google Discover, Search Console은 Google LLC의 상표입니다. Marfeel은 해당 소유자의 상표입니다. IG CRM AI LLC는 Google 및 Marfeel과 제휴 관계가 없습니다.

© 2026 IG CRM AI LLC · 모든 권리 보유.